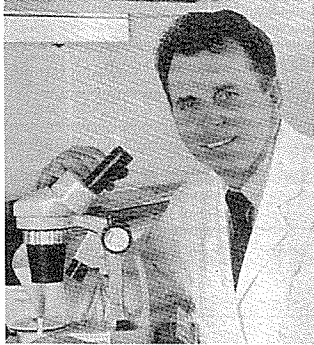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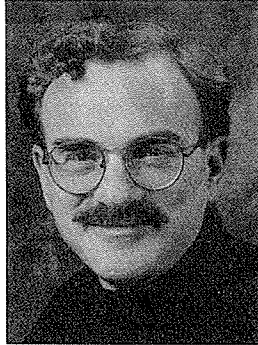


加 거드너재단 국제의학상 시상

생물의학공학분야 로버트 랭거교수 등 5명에



▲ 배리 마샬



▲ 랜디 셰크맨



▲ 로버트 랭거



▲ 제넷 로울리



▲ 제임스 로스맨

캐나다 온타리오주 윌로 우데일 소재의 거드너재단은 1996년 10월 25일 토론토에서 가진 국제의학상 수여식에서 5명의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약품송달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로버트 랭거(48세)에게 시상함으로써 40년 만에 처음으로 생물의학공학분야의 연구자가 상을 받게 되었다.

1996년도의 수상자는 랭

거 외에 버지니아대학 내과학 부교수인 배리 마샬(45세), 뉴욕의 슬론케터링연구소 부소장이며 슬론케터링기념암센터 분자생물화학 및 생물물리학부 부장인 제임스 로스맨(45세), 시카고대학 의학부 명예교수인 제넷 로울리(71세) 그리고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의 하워드 휴즈의학연구소 연구원이며 분자 및 세포생물학교수인 랜디 셰크맨(47세)이다.

수상자들은 각각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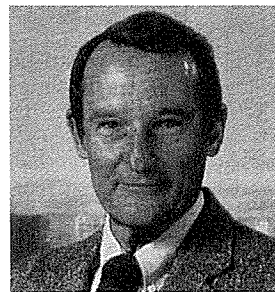
달러로 3만달러(미화 2만 1천9백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다. 심한 관절염을 앓던 캐나다의 주식거래상이며 실업가인 제임스 거드너가 창설한 이 시상제도는 당초 관절염, 류머티스 그리고 심장병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시상했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질병정복과 인간의 고통을 해방시

키는데 공헌한 사람들에게 시상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생의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면역, 세포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분자생물학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수여했다.

1957년 창설된 이 재단은 그동안 2백43명의 과학자들에게 시상했는데 그중에서 거의 20%인 46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슈퍼 컴퓨터 발명자 크레이 별반

71세 ... 자동차 충돌사고로 美 콜로라도서



▲ 세이모어 크레이

슈퍼컴퓨터의 발명자인 세이모어 크레이가 1996년 10월 자동차충돌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향년 71세에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별세했다. 1960년대에 세계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제작한 이 전설적인 전기공학자는 미국 위스콘신주 북부 치페와폴즈에서 남매중 맏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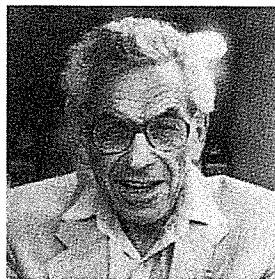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시청의 기사였고 모친은 평범한 주부였다.

중서부 시골 소년들은 숲속을 뛰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몰고 다니기를 좋아했으나 크레이는 지하실에 처박혀 온갖 무선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그가 에렉터세트라는 전기부품과 모터를 사용하여 자동전신계를 만든 것은 열살 때였다. 치페와폴즈고등학교시절에도 크레이는 온갖 정열을 과학에 쏟았고 물리 선생이 결혼할 때는 으레 크레이가 가르쳤는데 교사보다 물리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다. 2차대전중 유럽 전선에 서 무선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 전선으로 옮겨 일본군의 암호를 푸는 일을 맡았다. 제대후 미네소타대학으로 진학한 크레이는 1951년 전기공학사와 응용수학석사의 학위를 받고 ERA사에 입사하여 컴퓨터와 관련을 맺기 시작했으나 1957년 윌리엄 노리스가 창업한 컨트롤 데이터사(CDC)로 옮겼다.

그는 이 곳에서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대체한 최초의 컴퓨터의 하나인 CDC 1604를 만들었다. 이어 세계 최초의 상용컴퓨터인 CDC 6600을 제작한 크레이는 1968년 초당 1천5백만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CDC 7600을 개발하여 과학컴퓨터에서는 선두를 달리게 되었다. 1972년 CDC 8600형 개발을 놓고 노리스와 이견을 보이자 독

립하여 크레이 리서치사를 창업하고 크레이-1 슈퍼컴퓨터 제작에 나섰다. 1976년 출시된 최초의 제품의 크기는 CDC 7600의 4분의 1 밖에 안되었으나 10배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비로 8백60만달러를 투입했으나 국립대기연구소 센터에 8백80만달러에 팔아 단번에 회수했다. 승승장구로 세계 슈퍼컴퓨터계의 제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많은 기행(奇行)으로 수수께끼의 인물이 되어 버렸다. 그의 기행중의 가장 이름난 것은 '불의 의식'이다. 크레이는 해마다 봄이 되면 공을 들여 나무요트를 만들었다. 그는 이 요트를 타다가 여름이 되면 친구들을 초청하여 요트에 불을 질렀다. 이 의식은 그가 부단히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었다.



▲ 폴 에어디쉬

을 둔 그는 네살때 벌써 부수(負數)를 알게 되었고 10대 후반에는 소수에 관한 여러 발견을 했다. 1913년 태어나서 83세에 바르샤바에서 열린 수학회의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그는 방랑하는 유대인으로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아이도 갖지 않았고 부인도 없었으며 그 흔한 신용카드도 없었다. 또 평생 직장도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가방에는 약간의 옷과 노트북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강의할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사는 동료 과학자에게 전화를 걸고 "내 두뇌가 거리에 있다"고 말한다. 마치 지옥에서 온 손님의 말같이 들리지만 그를 초빙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두뇌는 보물같은 존재였으며 공동책임으로 그를 채우고 먹이고 또 옷을 세탁했다. 그는 "개인재산이라는 것은 귀찮은 존재"라고

했다. 예컨대 1983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윌프상을 수상했을 때 상금으로 받은 5만달러중 그가 주머니에 넣은 것은 7백50달러였다. 나머지는 어머니를 기념하여 만든 장학금과 친척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수입원은 찾아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지불하는 강사료와 수교료가 전부였다.

그는 젊은 수학자들에게 수학문제를 출제하여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몇백달러의 상금을 주었다. 그는 1년 내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누비고 다녔으나 한 곳에서 한달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하루 4시간 자는 것 외에는 16시간에서 20시간을 수학하는 일로 보냈다.

에어디쉬는 초기의 수학자들이 만든 소수이론을 보다 우아한 접근방법으로 재조명했다. 이를테면 남아메리카를 돌던 항로 대신 파나마운하를 새로 만든 것과 견줄만한 것이었다. 그의 그래프에 관한 연구는 통신망설계에도 응용되었다. ①7

피폭스런 수학자 에어디쉬 사망

83세 독신으로 ... 논문 1천5백편 남겨

20세기의 과학연구자중에서 가장 피폭스런 사람으로 꼽히는 헝가리 태생의 위대한 수학자 폴 에어디쉬

(Paul Erdos)가 1천5백여 편의 논문을 남기고 1996년 9월 20일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수학교사인 양친